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박태선 장로 탄신 100주년

박태선 장로에 대한 평가 새롭게 해야

올해는 박태선 장로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박 장로님은 1917년 11월 22일 경북 덕천에서 출생하여 1990년 2월 10일 '기장 신앙촌' 자택에서 화천(化天)하셨다.

대부분의 세인(世人)들은 박 장로님을 사이비종교 교주로만 알고 있다. 박 장로님이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한 자세한 연구 없이 주로 기성 기독교 교단의 주장만 따른 매스컴의 보도의 여파이다. 또한 박 장로님도 기이한 말년 행적을 보여 자신을 따랐던 전도관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박 장로님은 겉으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소위 쇼를 했다는 평가가 있다.

성경에 예언된 기적이 일어난다

먼저 박 장로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자.

박 장로님은 1955년 1월 서울 왕십리 무학교회에서 일주일간의 부흥회를 시작하였다. 6.25 전쟁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슬은혜를 받았으며, 1954년 3월 "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들은 지 약 8개월이 흐른 뒤였다. 무학교회 부흥회 후 전국 교회들은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 대 부흥회'라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이고 박 장로를 부흥강사로 초청하였다. 부흥회에 참석한 수많은 병자들의 불치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사 35:5-6)"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박 장로님 부흥회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한 박 장로님이 가는 곳에는 이슬이 폭포수처럼 내렸고,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언급된 진한 향취가 진동하였다. 박 장로님은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안찰과 안수를 해 주었고, 이를 받은 교인들은 그 즉시 은혜로 충만해졌다. "바울이 그 위에 손을 안찰(按摩)하며 성신이 그 위에 임하시(행 19:6)"라는 말씀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안찰을 처음 받는 사람은 배가 찢어지고 칼로 살을 가르는데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열마나 고통이 심한지 폐지 먹따는 소리를 질러댔다. 박 장로님은 자신 속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고, 서너 번 안찰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였으며, 안찰을



박태선 장로(우측 2번째 얼굴 보이는 분)가 안찰하는 장면

받으면 받을수록 상쾌해지며 생수가 흐르기도 했다. 생수란 입안에서 뱃속으로 시원하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은혜가 들어오는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니(요 7:38)"라는 말씀이 있지만 박 장로님 이외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도 몰랐다. 대부분의

하고 박 장로님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제명한다는 공문을 띄웠고, 그 후 전국 총회에서도 박 장로님을 이단으로 결의하여 집회 참석을 막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집회에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다. 박 장로님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며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 1956년 초에

전도관이라는 명칭이 격양유록 도하지(道下止) 편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으니 박 장로님의 역사는 우리 옛 선조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정도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다.

박 장로님은 "구세주 출현 직전에 이 땅에 와서 구세주가 걸어갈 길을 예비한 위대한 존재"이며 태초에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찾아 하나님을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사명을 하늘로부터 받아 그 사명을 이룬 위대한 분이다.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박 장로님 집회에 참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적(異蹟)이 일어나니 전국의 목사들도 몰려와 박 장로님 집회에 참석도 하고, 호텔 방에서 물레 안찰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박 장로님에게 은혜를 받고 간증까지 한 유력인사 중에는 고 윤치영 국회의장, 고 임영신 체신부장관, 손원일 제독의 부인 흥은혜 여사가 있다.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전국 기독교인들이 박 장로님의 능력에 압도되자 위기감을 느낀 기독교 권주주의자 목사들이 1956년 2월 15일 경기도화에서 박 장로님을 이단으로 결의

서울 원효로 철공장(박 장로님이 운영 하는 공장)을 개조해 집회장으로 만들어 전도관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관이라는 명칭이 격양유록 도하지(道下止) 편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으니 박 장로님의 역사는 우리 옛 선조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정도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박 장로님은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전도관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박 장로님은 1957년 소사신앙촌을 세워 전국 교인들을 입주시킨 후 모범적인 신앙공동체로서 육성하였고, 그 후 1961년 덕소신앙촌, 1970년 기장신앙촌을 세워 역사하다가 1980년 들어서부터 전도관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을 고의

로 부도를 내었으며, 교인들을 신앙촌에서 내쫓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교인들조차 박 장로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갈탄 보고 "박 장로님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망을 하셨다"고 말하며 비난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박 장로님에 대한 자세한 연구도 없이 나온 일련의 잘못된 평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박 장로님을 지근(至近)에서 모셨던 고 김상욱 전 신도회장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도서출판 해인)라는 책에서 "구세주가 걸어갈 길을 예비한 위대한 존재"라고 평했다. 그에 따르면 박 장로님은 태초에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찾아 하나님을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사명을 하늘로부터 받아 그 사명을 이룬 위대한 분이 라는 것이다.

또한 박 장로님이 삼위일체로 완성시킨 하나님은 바로 승리제단의 조희성님이며, 조희성님은 인류의 구세주로서 전 인류를 불사생명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정애씨가 임이 열려 감동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박 장로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너무 잘못되어 있다. 조희성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나 그와 동시에 박 장로님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박 장로님 탄신 100주년을 맞는 올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께서는 나라를 죽이기 위하여 중노동을 하셨다고 한다. 일하기 싫으니 열심히 일을 했고 쉬고 싶으니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반대생활이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죄다. 고아원에 쌀을 100가마 갖다 줘도 죄다. 내가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합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반대생활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지역 1등: 6지역(지역장: 안병천, 지회장: 석선자)
- 2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구역 1등: 58구역(구역장: 윤금옥)
- 2등: 29구역(구역장: 정택모)
- 3등: 54구역(구역장: 성주희)
- *개인 1등: 윤금옥 승사
- 2등: 정수운 승사
- 3등: 원현옥*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03)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잘 안 되어서고로 '뒤돌아보는 음란죄'에 걸려 넘어져 해와 주님에게 주먹따귀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실 틈을 주면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음란죄'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발에 가서 중노동을 하였으며 돌산을 개간

하여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개 같은 마귀 새끼가 쉬기는 될 쉬어. 너는 죽어야 되는데, 쉬면 마귀가 도로 살아나니 쉬 쉬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하여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합시다!



영모(靈母)

구세주란 영모(靈母)이다. 영모란 영적 엄마(spiritual mother)다. 영(靈)을 키워주는 엄마라는 뜻이다. 영을 키워준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영모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일반적인 의미로서 엄마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보통 엄마는 자기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는 존재를 일컫는다. 물론 요즘은 우유로 키우는 엄마가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자식을 키우는 존재이다. 반면 영적 엄마는 자신을 낳지는 않았지만 영의 젖을 먹여 키우는 존재이다. 격양유록 弄弓歌(통궁가)에도 영모의 의미를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즉 "嗚嗚嗚嗚阿父嗚嗚(엄마엄마아부엄마) 天下第一(천하제일)우리嗚嗚(엄마) 道乳充腸(도유충장) 이내몸이 嗚嗚(엄마)엄시 아이살가" 영적 엄마가 도(道)의 젖을 먹여 자식을 키운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모는 성경으로 자식을 키운다

엄마의 모유(母乳)나 우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 영의 젖은 어떤 것이고, 도유(道乳)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정신적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위 정신적 스승이라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영모의 역할을 세상의 엄마는 자식들이 성장할 때

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준다. 반면 영모는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 육(肉)의 나이는 햇수로 분별이 되지만 영(靈)의 나이는 햇수와 별로 상관없다. 그래서 영모는 사람을 키울 때 그 자식의 모든 것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훈육을 한다. 영의 나이가 많고 적음은 죄의 숫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어리고, 죄가 적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영모는 죄에 따라 성령을 부여 가르친다.

영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의 원수가 되는 마귀(죄)를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영모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준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어도 자식이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이겨주고, 스스로 이길 때까지 계속 힘을 주어 키운다. 영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고 끝까지 믿고 이길 때까지 키운다.

그래서 영모를 만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마귀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만 영모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끝내 마귀에게 승리하여 영생대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영모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각자 깊이 깨달아 이기고 또 이기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본부재단 1월 지역활동 시상식

6지역 18개월 만에 1등



6지역 석선자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2017년 3월 7일 화요일, 본부재단 2017년 2월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6지

역이 2015년 8월 1등을 한 이후 1년 만에 1등을 차지하였으며 3지역이 2등,

4지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개인성적으로는 윤금옥 승사가 1등, 정수운 승사가 2등, 원현옥님이 3등을 차지하였다. 구역성적은 개인성적이 그대로 반영되어 58구역이 1등, 29구역이 2등, 54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6지역의 1등에는 윤금옥 승사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원현옥님이 힘을 보탰다.

더구나 1등을 한 6지역은 3월 2일 임명된 신입 지역장 안병천 승사의 취임과 동시에 1등을 차지하여 의미가 있었다. 3지역의 2등에는 개인과 구역에서 2등을 차지하는데 공헌한 정수운 승사가 있는 반면 4지역은 등수 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없지만 전 지역식구의 고된 지지에 의하여 3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면모를 과시하였다.

시상식을 수여한 윤봉수 회장은 "이 같은 나라를 죽이는 곳이다. 주님

우·리·역·사·바·로·잡·기·캠·페·인

승리재단 우리역사 바로잡기 운동본부
(연락처: 032-343-9981, 010-5583-4938)

왜, 단군민족의 뿌리역사를 밝혀야만 하는가?

뒤틀린 인류사를 바로 잡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왜, 단군민족은 위대한 민족인가?

구세주를 낳은 민족이요, 인류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